예수께 비는 소원의 정석

(마태복음 15:21~28)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께 비는 소원의 정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께 비는 소원의 정석'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소원 빌기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정석대로 소원을 빌 때에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에도 대박이 나는 셈이 됩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사 "오!(ὦ)"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하자면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에 감탄을 하셨고 그 결과 여인은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여인의 소원은 예수님을 감탄시킬 정도로 큰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중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거나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발생한 소원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원을 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의 소원은 단지 딸에게서 흉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진 소원의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여인의 소원을 잘 배움으로써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큰 칭찬과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인이 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소원에 응답하셨고 직접적으로는 소원과 연관이 없었던 흉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까지도 함께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소원과 부차적인 현실과의 차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불쌍하게 여김 받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나올 수 있는 길로써 어제 설교를 통해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나신 이 여인을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이방인임을 강조하고자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과거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선민과 대치했던 대표적인 이방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방 여인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선민들의 태도와 대비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일컫는 별칭이었습니다. 이방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러한 메시아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구원이란 곧 내가 가장 좋아하여 그리워하는 대상에게로 가는 것이고 메시아는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이러한 구원의 의미

를 잘 드러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원을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돈이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건강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이 구원이 됩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느껴지는 구원은 삶과 직결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 즉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것일까요?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실망하시고 떠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 임금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육체가 속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치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메시아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한층 더 강하게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족으로써 로마와의 협의 하에 유대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기와 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같이 왕권을 휘두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한편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하신 것은 로마 백부장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점이 이들의 믿음을 더욱 가치 있게 보이게 합니다. 믿음은 곧 그리움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그리워했던 대상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큰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었음을 염두에 두자면 이 여인이 이방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신으로 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얼핏 당연해 보이는 말입니다만 앞뒤를 바꾸어보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것은 저입니다.”라는 내용이 되어 인과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어떤 학

자들은 딸과 일체감을 느끼며 한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큰 모성애일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바라신 큰 믿음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딸이 낫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열망도 예수님이 바라신 큰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예수님이 바라신 큰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란 곧 내가 가장 좋아해서 그리워하는 대상에게로 가는 것이고 메시아 즉 구세주는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길 수 있었던 마음이란 당연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자들에게만 메시아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돈이나 건강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바랬던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는 고백입니다. 성경말씀 중에서도 가히 명품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시선은 흉악한 귀신들린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느낄 때에는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좋아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삼을 수 없을 때, 그리워하는 대상에게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때, 그토록 좋아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괴로운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사장님이 괴로워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좋아하지만 현실로 삼을 수 없게 되었기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상태를 단순히 모성애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라신 믿음이란 가족에게조차 향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37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불쌍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딸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지상정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제 갈 길을 가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늘을 향하지 못하기가 십상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의 경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었습니다.

아픈 딸이 엄마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강력한 힘은 이 여인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인은 불쌍히 여김 받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자 하지만 딸이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한 눈을 팔아도 딸은 다치고 사고를 저지르며 길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러는 동안에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한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된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움하면 떠오르는 것이 망부석 전설입니다. 신라 눌지왕 때에 왕자가 왜국에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박제상이 가서 왕자를 탈출시키고 자신은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몰랐던 박제상의 아내는 수리재에 올라 현해탄을 바라보며 남편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리워하다가 끝내 돌이 되어버립니다.
남편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던 박제상의 아내가 살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자녀나 시부모를 돌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살림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본문의 여인에게서도 잘 드러납니다. 26~2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수만 있다면 삶이 개판이 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인은 한이 맺혔던 소원을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보낼 수 없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풀어보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흉악한 귀신들린 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나님께 딸로 인해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감탄하신 여인의 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빌어도 되는 단 한 가지 유형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보면 마음에서 자녀가 가장 귀한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자녀가 그 자리에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빌어도 되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건강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립고 좋을 때에만 구원은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과 밀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몸을 주신 이유는 건강하고 장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몸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기회의 제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서 몸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낄 정도로 중요한 대상을 주신 이유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리워하라는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가짐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딸이 건강하게 잘 살아도 마음을 빼앗길 판인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마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딸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 같이 이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사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귀신들린 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인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딸을 제거해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녀지간이 끝이 나거나 딸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책임의 주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딸을 책임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던 딸을 제거하시자 딸에게도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속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딸을 사로잡고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대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대로 된 소원을

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사업이 어른댄다면 “아버지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사업이 끼어있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거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업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더는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인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오히려 마음을 쏟게 되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세상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소원 빌기입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세상이 제거됨과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장악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하게 됨을 느낀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소원 빌기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세상을 제거해나가고 하나님과 마음을 밀착시키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되 주님께 소원을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아버지 사이에 끼어드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의 대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에 주님께서 응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앞당겨 느끼며 맞이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